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1928-01



부모
교육
자료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배려

1. 배려의 의미 / 04
2. 유아기의 예절교육 / 05
3. 우리 가족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 06
4. 즐거웠던 주말 / 07

5.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08
6.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요 / 09
7. 우리 가족은 환경 지킴이! / 10
8. 내가 가 본 박물관 / 11

존중

협력

9. 너와 내가 함께 '협력' / 14
10.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놀이 / 16
11. 협력하면 좋아요 / 19

12. 미래사회의 리더를 위한 '나눔 교육' / 20
13. 우리가족에게는 어떤 나눔이 어울릴까요? / 21
14. 사랑의 나눔: '울지마 톤즈' / 23

나눔

15. 질서는 행복입니다 / 25
16. 자녀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 26
17.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정해요 / 27
18. 우리 아이의 올바른 습관 기르기 / 28

질서

19. 심청전 이야기 / 30
20. 자녀와 함께 높임말을 사용해요 / 31
21. 할머니 · 할아버지와 함께 해요 / 38

효



배려의 의미

인성요소 : 배려

배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쏟' 즉,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배려는 인간뿐 아니라 사물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일컬으며, 좁은 의미로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실질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세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을 하였고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낚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낚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커다란 사건이 되듯이, 소와 사자는 심하게 다투었고 끝내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도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 일 뿐입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 일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나만의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책임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맙니다.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것도 나 위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나만의 최선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의 최선이 남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 소의 눈으로, 사자의 눈으로, 나의 최선으로...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배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행동이라고 다 배려는 아닙니다. 배려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배려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에 난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자주 건너가고, 더욱 튼튼하게 다져 주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예절교육

인성요소 : 배려

예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 이해, 존중하는 예의범절을 뜻합니다. 유아기 예절 교육을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때와 장소와 대상에 적절한 예의 바른 행동을 익히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절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절바른 아이로 자녀를 성장하게 하는데에는 부모가 몸소 예절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절이란 마주하는 상대에게 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상과 상황에 따라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 주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의를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 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만약 자녀가 예의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녀가 뛰여 다니면 "음식점에서는 뛰는 것이 아니야"하고 알려 주기보다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다른 아이가 시끄럽게 뛰면 어떨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유아들이 왜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단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만 안다면 예절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절 바르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유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예절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유아들이 성인에게는 예의바르게 행동해도 또래나 특히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친구나 동생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인성요소 : 배려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가족을 위한 배려쿠폰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아들이 가족들에게 선물한 가족 배려 쿠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아이에게 받은 배려선물에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제 가족 안에서 서로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고, 내용을 적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을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웠던 주말!

인성요소 : 배려

주말에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아마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주말을 어떻게 지낼지 주말 중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함께 세운 일과 계획 중에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의 일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웃을 위해 배려할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웃을 위한 배려를 실천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나요?
즐거웠던 주말 경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인성요소 : 존중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거나 친구와 지내는 동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와 잘 지내는 아이는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는 그 미래도 행복할 것입니다.

☀️ 자녀가 친구와 잘 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친구들과 놀이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워 주세요.
-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 자기의 고집대로만 놀이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함께 놀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 친구랑 장난감을 나눠 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 자녀가 잘 할 때 칭찬해 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자녀가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의논하려고 노력하세요.

☀️ 친구와 다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잘 듣도록 해 주세요.
-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요

인성요소 : 존중



자녀와 함께 친구와 관련된 책을 자녀와 함께 읽어보면서 친구에 대한 생각을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만약 너라면 어떻게 할래?”

“친구와 놀이를 같이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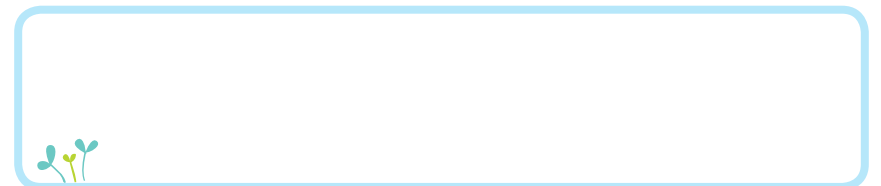
이런 책을 읽어 보세요.

- 나랑 놀아줘! (미래아이, 2008, 글/니코 드브레 켈리어, 그림/로즈마리 드보스)
- 내 짝궁 에이미 (국민서관, 2002, 글·그림/스티븐 마이클 킹)
- 두두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중앙출판사, 2001, 글·그림/안네테 슐보르)
- 사라와 돌 아저씨 (행복한아이들, 2003, 글/프랑수아즈 주, 그림/프레데릭 주)
- 우리, 같이 놀래? (비룡소, 2005, 글·그림/대니얼 그리프)
- 우리는 친구 (웅진 주니어, 2008, 글·그림/앤서니 브라운)
- 우리는 단짝 친구 (푸른날개, 2009, 글·그림/데이비드 맥페일)
- 우리 친구하자 (한림출판사, 2001, 글/쓰쓰이 요리코, 그림/하야시 아키코)
- 친구가 되어 줄게 (주니어랜덤, 2007, 글/우치다린타로, 그림/후리아나나)
- 행복을 전하는 편지 (시공주니어, 2006, 글/안소니 프랑크, 그림/티파니 비키)



친구에게 편지 쓰기

어떤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지,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아요. 친구에게 쓴 편지는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직접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환경 지킴이!

인성요소 : 존중

유치원에서는 유아들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세상이 건강해진답니다. 가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나



 가정에서 토의한 내용은 유아 편에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 본 박물관

인성요소 : 존중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존중,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문화에 접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전통 문화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람 장소를 선택할 때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느낄 수 있는 소재나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 부모님의 관심 보다는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선택하면 더 관람 효과가 좋겠지요.
- 자녀의 연령에 맞는 지를 생각해 보시고, 자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 곳을 선택해도 좋아요.

관람 전에

- 자녀와 함께 신문기사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을 통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미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신문, 잡지, 홈페이지, 보고 온 사람에게 정보 얻기 등).
- 홈페이지로 각종 행사 일정을 숙지하고 참여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리 신청하면 좋아요.
- 전시는 걸어 다니거나 계속 서 있어야 하므로 되도록 편하고 간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 자녀가 원한다면 관심 있는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 시간에 쫓기면 감상이 되지 않으므로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보세요.



관람 중에

- 되도록 소지품이 없어야 편하므로 물품 보관소에 맡기세요.
- 입구에서 브로셔를 받아 전시장 지도나 간단한 정보를 읽으세요.
- 자녀의 연령이 어리므로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루에 다 보게 하기 보다는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몇 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관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사람이 관람을 하는 곳이므로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예의를 지키세요.
- 조용히 말하고 걸어 다니기
- 음식물과 음료수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사진 촬영하지 않기
- 사람이 많을 경우 차례를 지켜 관람하기
- 박물관의 동선을 따라 관람하고 작품에는 손대지 않기

관람 후에

- 여유가 된다면 미술관에서 엽서, 포스터, 도록 등을 구입하여 깊이 있는 경험을 하세요.
- 감동이나 느낌, 혹은 본인의 해석 등 의견을 글로 남겨 사고를 명료화 시켜보세요.
- 전시장에서 주는 자료 혹은 홈페이지 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 경험을 더욱 연장시키고 사고의 폭을 넓혀 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방문해 볼 만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Tel. 02) 2077-9000 www.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Tel. 02) 3704-3114 www.nfm.go.kr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Tel. 02) 3701-7500 www.gogung.go.kr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Tel. 031) 288-5300 www.musenet.or.kr
한국의 집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0-2 Tel. 02) 2278-1776 www.koreahouse.or.kr
덕수궁 미술관	서울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 내 Tel. 02) 2022-0612 www.moca.go.kr/deoksugung.html
국립현대 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1 Tel. 02) 2088-6000 www.moca.go.kr
바탕골 예술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 2리 368-2 Tel. 031) 774-0745 www.batangol.co.kr
지구촌 민속교육 박물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길 113 교육연구정보원 2,3층 Tel. 02) 3111-210 www.seri.re.kr
중남미 문화원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302-1 Tel. 031) 962-7171 www.latina.or.kr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Tel. 02) 793-6908 www.koreaislam.org
티벳 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15-2 Tel. 02) 735-8149 www.tibetmuseum.co.kr
몽골문화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250번지 Tel. 031) 559-8018 www.mongoliatown.co.kr



‘우리 아이는 뭐든지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싫어해요’ 혹시 우리 아이 이야기는 아닌가요?

요즘 어린이들은 핵가족화, TV와 컴퓨터 매체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대인관계경험이 부족해지고,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풍토로 인해 점차 ‘함께 협력하는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으며, 협력하는 가운데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함께 경험하게 됨으로써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 협력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 협력할 때마다 협력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 혼자했을 때와 협력했을 때의 차이를 알도록 해 주세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해 낼 수 있고, 집단구성원 모두가 즐거워진다는 것을 자녀에게 꼭 알려주세요.
- 협력이 필요한 일과 경쟁이 필요한 일을 구분하도록 도와주고, 부모 역시 평소에 경쟁을 부추기는 말보다 협력을 강조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협력 놀이를 해보세요. 협력 놀이를 통해 큰 재미와 기쁨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며,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갈등해결 능력, 문제해결력 및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파라슈트 놀이



집에 있는 가벼운 무릎 담요나 보자기에 공을 놓고 공이 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바닥에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힘을 모아보세요.

베개를 사이에 끼우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대지 않고 풍선을 협력해서 나르는 놀이를 해보세요. 허리와 허리, 가슴과 가슴, 등과 등...서로 협력해야 풍선이 떨어지지 않겠지요?

지글지글 야채전



가족과 함께 야채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야채를 넣을지, 어떤 방법으로 요리할지 의논해 보세요. 재료 씻기, 썰기, 재료섞기, 지지기 등 가족 구성원마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역할을 나누어 요리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협력해서 만든 야채전 맛은 어떨까요?



협력하면 좋아요

인성요소 : 협력

우리가족만의 협력 놀이를 만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협력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제목도 함께 짓고 놀이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써 보세요.

우리가족 협력 놀이 :

가정에서 토의한 협력놀이는 자녀 편에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도 각 가정에서 만든 협력놀이에 대해 소개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개된 협력 놀이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는다면 그 일은 그만큼 쉬어진다는 뜻이지요. 자녀에게 아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협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든 다리

우르릉 광광!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세찬 비가 동물 마을에 하루 종일 내려 숲속 동물 마을과 이웃 마을을 이어주던 돌다리가 다 떠내려갔어요.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오늘 바쁜데... 하지만 같이 다리를 만드는 게 좋겠어.

동물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천둥번개가 쳐도 비가와도 끄덕없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로 입을 모아했어요.

무거운 나무는 누가 들지?

동물들 :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들면 가벼울 거야.

개울가로 어떻게 옮기지?

동물들: 우리가 함께 옮기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동물들은 힘을 합쳐 튼튼한 나무를 골라 개울가로 옮기고 나무와 나무를 엮어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 멋진 꽃밭도 세워 두었지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든 다리’ 라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 만약 동물들이 함께 다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 동물들이 협력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협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될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자질을 길러주세요. '나눔 교육'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 나눔교육,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가족 안에서부터 나누고 돌보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안 입을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가져다주는 등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나눔을 실천한 위인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점이 훌륭한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 어려서부터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조금씩 아끼고 절약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가 다른 친구를 걱정하거나 도와줄 때 '나눔은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해 주세요.
- 나눔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억지로 나눔을 강요하면 거부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 나눔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눔에는 재능 나눔, 봉사 나눔, 돈 나눔, 음식 나눔, 환경 나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눔도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재능 나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십여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권오기 대표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족의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TV 2011-5-9 기사

봉사 나눔

바쁜 생활 틈틈이 고아원 아이들 돌보기,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빨래 해주기 등 시간을 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돈 나눔

빌게이츠는 미국의 컴퓨터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며 돈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음식 나눔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지회장 이수덕)는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께 밥과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드리는 음식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11-4-15 기사

환경 나눔

제인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한 동물학자로 사라져가는 침팬지를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환경 운동을 펼치며 환경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는 나눔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는 나눔은 무엇일까요?

그림으로 그리거나 적어 보세요.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아빠생각



엄마 생각



내 생각



이태석은 1962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아홉째로 태어났습니다. 이태석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은 꿈을 꾸었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어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로 떠났습니다.

톤즈에는 몸이 아파도 치료해줄 의사가 없었고,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직접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맨발로 생활하느라 상처가 많이 생겨 계속해서 문드러져 가는 그들의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전용 샌들을 직접 맞춰주기도 하고, 약도 직접 구해다가 그들을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한국에 돌아와 여전히 수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금 활동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 암이 몸 곳곳에 퍼져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모든 것이 메마른 땅 톤즈에서 눈물의 배움을 받으며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온몸을 다해 톤즈를 사랑했던 이태석 신부님은 톤즈의 의사이자, 선생님이었고, 지휘자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신부가 되지 않고 의사만 했어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갔을까요?

이태석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신부님은 왜 아프리카 톤즈로 갔을까요?
- 신부님은 아프리카 톤즈로 가서 무슨 일을 했나요?
- 신부님은 톤즈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준 것일까요?

아이들은 흥내쟁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 주세요^^
아이들의 학습은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첫 공부인 것이지요.

나의 등굣길

글, 그림 : 김양수



• 법무부 법질서선전화기획단(www.lawnorder.go.kr)

• 기초질서, 조금만 신경쓰면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도로횡단 중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관련 사고와 무단 횡단 사고가 7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지켜주세요



- 차를 타면 부모님께서 먼저 안전벨트 매주세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 자녀는 뒷좌석에 앉혀주세요. 불가피하게 앞좌석에 앉히는 경우 좌석을 뒤로 밀어주세요.
- 짧은 거리라도 안전벨트, 안전카시트를 착용해주세요.
- 운행 중 차문은 꼭 잠가주세요.
- 후진을 할 때는 차 뒤를 꼭 살펴보세요.
-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는 꼭 안전한 장소에서 타도록 해주세요.
- 무단횡단은 하지 않아야 해요.
-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마자 뛰는 것은 위험해요.
- 공이 차길로 들어가거나 길 건너 친구를 발견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알려주세요.

☀ 규칙은 왜 필요할까요?

자녀와 함께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에서 규칙이 왜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려면 규칙이 필요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면 질서있는 생활이 된대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도와주면 즐거운 생활이 된대요.”

☀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만들어요!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생각해 보세요.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정해 그림으로 그리거나 써 보세요.

* 규칙은 '~하지 말아요'라는 부정의 표현보다 '~해요'의 긍정의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 가정에서 토의한 규칙은 자녀 편에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는 각 가정에서 정해 지키고 있는 규칙에 대해 소개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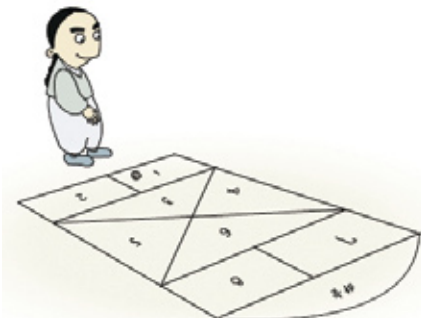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이기적이어서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 순서 지키는 게임을 해보세요.

자녀들과 즐거운 사방치기 게임을 통해 순서를 지키는 경험을 해보세요. 유아들은 게임을 통해 자신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1번~8번까지 순서대로 지나는 경험을 통해 '순서'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 사방치기 게임

1. 1번에 돌을 던진다.
2. 2번~8번까지 외발(2, 3, 6번)이나 두 발(4~5번, 7~8번)로 갔다가 돌아와서, 1번에 있는 돌을 주워들고 나온다.
3. 2번~8번까지 같은 방식으로 놀이한다.
4. 8번까지 끝나면, 뒤로 돌아서서 머리 뒤로 던져서 '하늘'에 돌이 들어가게 한 후, 7~8번에서 뒤로 돌아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돌을 주워들고 돌아온다.



〈출처 : 어린이민속박물관
<http://www.kidsnfm.go.kr/>〉

☀ '순서 지키기'를 도와주려면...

1. 순서를 지켜야 하는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책을 읽어줄 때 '어머니 한번, 아이 한번' 순서를 정해 넘기도록 해주세요.

2.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간식이나 음식을 줄 때도 아이 혼자 먹게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함께 먹으며 "엄마랑 ○○랑 같이 먹자. 이건 ○○꺼, 이건 엄마 꺼."하며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세요.

3. 줄 서는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하철을 타거나,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지키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세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순서를 지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힙니다.

4. 순서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무조건 "기다려."라고 피상적으로 순서를 알려주면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한 바퀴만 타고 내린다. 그네는 10번씩 타고 내린다."와 같은 규칙을 미리 정확하게 주어 기다리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심청전을 읽어보셨나요? 오늘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청전 이야기를 자녀에게 읽어주는 것은 어떨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심청의 어머니는 심청이를 낳은 지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심봉사는 심청이를 다른 사람에게 젖을 얻어 먹이며 열심히 키웠지요. 심청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15살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심봉사는 길을 걷다가 물에 빠져 지나가던 스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장님인 심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심청이도 알게 되었고 심청이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어 서제로 처녀를 필요로 하는 뱃사람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을 대가로 제물이 되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심청이는 용왕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도 만나고 연꽃에 태워져 다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심청이가 탄 연꽃은 뱃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임금님께 바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연꽃 속에 심청이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임금은 심청이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심청이는 왕비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 걱정 때문에 아버지를 찾기 위해 왕에게 청하여 10일 동안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마지막 잔치날, 심봉사가 잔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잔치에 갔습니다. 심청이는 심봉사를 바로 알아보고는 심봉사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갔어요. 심봉사는 심청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해 심청이를 보기위해 눈을 뜨려고 하자 정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심봉사는 더이상 심봉사가 아니게 되고 왕비가 된 심청이와 재회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녀와 함께 높임말과 예사말 카드를 맞추어 보면서 유아들이 높임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른께는 밥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아빠, 엄마를 높임말로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자녀와 함께 카드를 맞추어보세요.

활동방법

1. 함께 보내드리는 활동자료(별지)에 있는 카드를 선에 따라 오리세요.
2. 카드에 있는 그림과 글자를 함께 읽어보세요.
3. 그림과 글자를 보면서 높임말과 예사말을 맞추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높임말을 썼어요

위의 활동을 하고 나서 자녀가 높임말을 언제 어떤 높임말을 사용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카드에 나와 있는 높임말 외에 또 다른 높임말을 사용했다면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아래의 칸에 기록해봅시다.



별 지

엄마와 함께 높임말을 사용해요



친구야, 생일을 축하해.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려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동생이 앉아 있다.



할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다.



친구가 과일을 먹는다.



아버지께서 과일을 잡수신다.



내가 밥을 먹는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우리 딸 사진이에요.



따님이 아주 예쁘네요.



동생이 잠을 잔다.



어머니께서 잠을 주무신다.



할머니 ·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어르신들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고,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할머니 · 할아버지와 함께 해요

1.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요.
2.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책해요.
3.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함께 해요.
4.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요.
5.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들어요

* 이 밖에 또 어떤 활동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할머니 · 할아버지와 함께 활동한 사진을 붙여보세요.